

# 기와집에 장작불 황토방 아늑함 속 피로도 말끔히

## ■ 함평군 대동면 찜질방·민박 운영 박영숙씨

함평읍에서 5km가량 떨어진 대동면 덕산리 고산동 마을, 마을입구에 선 나무둘레 5m, 높이 12m 크기의 400여 년생 푸조나무가 방문객을 반긴다. 겨울철이라 잎을 다 떨고있고 초승달이 겹겹이 쌓인 듯한 몸통과 하늘을 향해 뻗어 올린 가지의 모양새가 웅장함을 준다.

박영숙(50)씨의 보금자리인 찜질방과 민박은 푸조나무와 마주하고 있다. 건물 처마 밑에는 수십 개의 크고 작은 웅기가 즐비해 놓여있고, 마당 한쪽에는 불쏘시개로 쓸 장작더미가 쌓여있다.

지난 4월, 충남 천안이 고향인 박씨는 함평 나비·곤충 엑스포장 한켠에 부스를 차려 도장을 새겨주고 판매하는 사업을 했다. 재료로 목에 지니고 있으면 잡귀를 물리쳐 행운을 불러온다는 '벽조목'(辟瘴木=벼락맞은 대추나무)을 사용했다.

행사기간중에 찜을 내 함평 이곳저곳을 돌아보다 우연히 이곳에 들렀던 박씨는 동네 분위기와 자연풍경이 너무 맘에 들어 천안에서 이곳으로 거처를 아예 옮기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박씨는 동네 사람이 운영하던 마을입구의 찜질방을 임대해 새롭게 사업을 겸한 전원생활을 시작했다.

처음 두 달동안 건물 곳곳을 닦아내고 주저장에 자갈을 까는 등 수리를 마친 후에야 장작불을 때는 찜질방과 함께 20~40명이 묵을 수 있는 황토방 4개를 갖추고 민박업무를 시작했다.

박씨는 "동네 분들이 '젊은 사람도 시골에서 빠

'나비·곤충엑스포'와 인연 지난 4월 이주  
"청주·된장, 함평지역 명물 만들겠다"

져나가는 판에 와줘서 고맙다'라고 말한다"며 "동네 사람과 친해지자 호천역시 자연스럽게 '천안택'이 됐다"며 활짝 웃었다.

또 찜질방·민박운영을 하는 한편 여든 살이 넘은 동네 할머니, '한물막'에게서 청주(淸酒) 빚는 법을 배웠다.

처음 맷줄을 짜서 누룩을 넣어 10여 일 발효시켜 나온 동동주를 거른 후 찰쌀과 누룩을 넣어 또다시 10여 일이 지나면 맑은 액체, 청주가 고인다. 물, 찰쌀, 누룩 등이 한가지라도 배합이 잘못되면 변질돼버리기 십상이어서 20여 일간 정성을 들여야 맛있는 청주가 완성된다는 부연설명이다.

박씨는 "할머니는 '술 담는 것도 손맛이다'라고 한다"며 "고산봉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맛이 좋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박씨가 담근 장이나 식혜, 물김치 등 남다른 '손맛' 역시 처음 입소문이 나며 사람들의 발길을 이끌고 있다.

고산동 마을은 지난 1999년 동네 뒷산인 고산봉에서 '황금 박쥐'(학명 붉은박쥐)가 발견돼 널리 알려진 곳이다. 그래서 생태보전 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주민들은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농법을 고집하고, 박씨는 동네 사람에게서 쌀·잡쌀은 물론 콩·녹두, 고추·깨 등을 음식재료로 구입해 사용한다. 박씨는 "함평을 '제 2의 고향'으로 여기고 뿌리를 내리겠다"며 "앞으로 청주와 된장을 지역명물로 만들어가고 싶다"고 말했다. 문의(061-324-9005) /글·사진=송기동기자 song@ /함평=박영진기자 pyj4079@



1999년 '황금박쥐' 발견... 생태지역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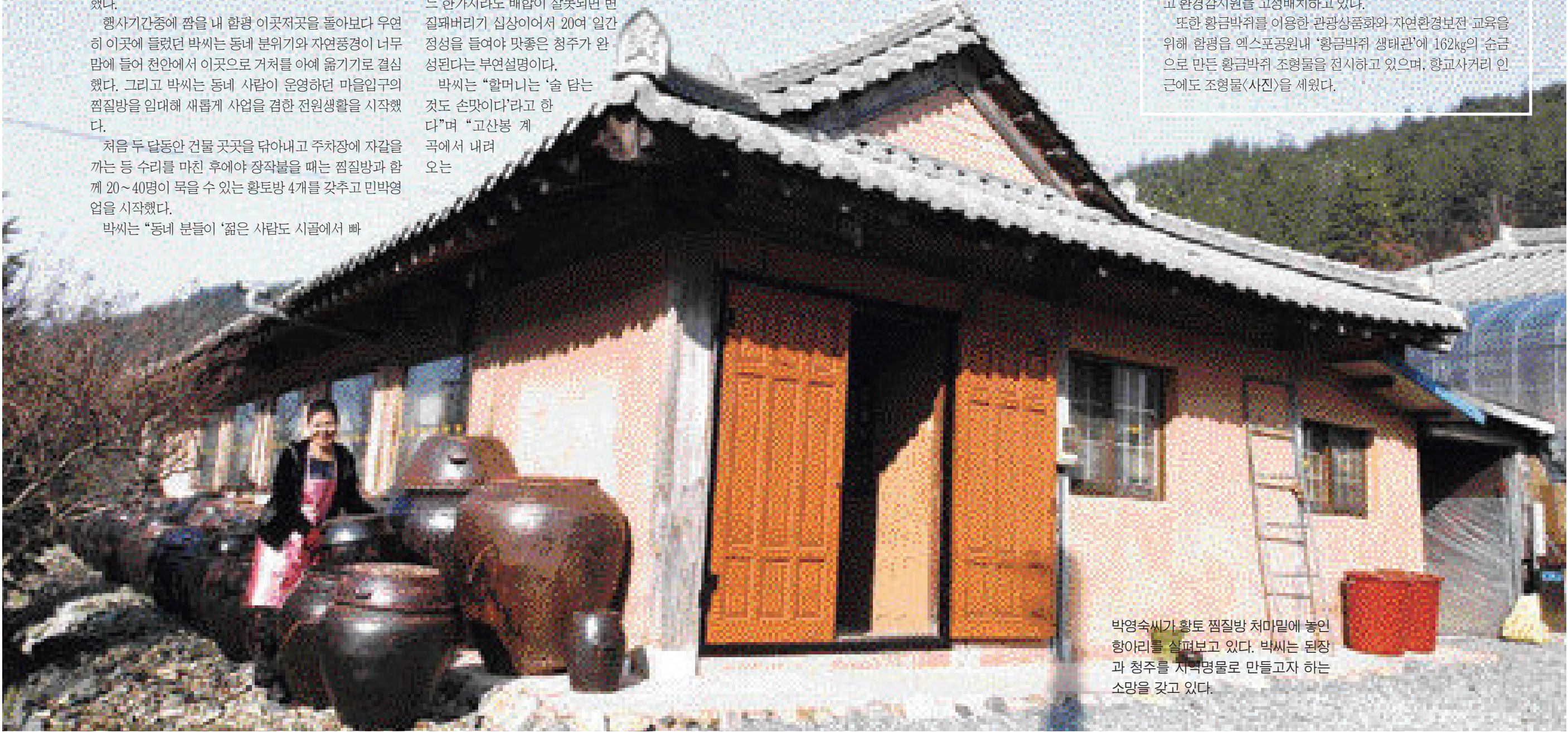
### ■ 고산동 마을은

일명 '황금박쥐'(붉은 박쥐)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동물(포유류) 제 1호이자 천연기념물 제452호로 지정돼 있다.

지난 1999년 방송사 취재팀에 의해 함평군 대동면 고산봉(359m) 폐광광 동굴에서 60여마리가 집단 서식하고 있는 것이 첫 발견된 후 2006년에는 160여 마리가 동면하는 것으로 조사되는 등 개체수가 늘고 있다. '황금박쥐'는 몸 길이 4.3~5.7cm 크기로 진한 오렌지색 몸통에 날개 부분이 검은색을 띠고 있다.

함평군은 2002년 5월 대동면 고산봉 일대 270만평을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해 사람의 출입과 생태계 훼손행위를 제한하고 환경감시원을 고정배치하고 있다.

또한 황금박쥐를 이용한 관광상품화와 자연환경보전 교육을 위해 함평읍 엑스포공원내 '황금박쥐 생태관'에 162kg의 순금으로 만든 황금박쥐 조형물을 전시하고 있으며, 향교사거리 인근에도 조형물(사진)을 세웠다.



박영숙씨가 황토 찜질방 처마 밑에 놓인 황아리를 살펴보고 있다. 박씨는 된장과 청주를 지역명물로 만들고자 하는 소망을 갖고 있다.

**리첸 주방가구**  
광주직영전시장 **OPEN**

리첸 주방가구, 광주직영전시장 **OPEN**

문의: 061-222-2222

**봄/선/동 아이엔리시아**

주최 프리미엄 뷔페

전문 요리사, 세미나, 직종 모험 및 행사 100여회 50여시를 준비

www.jelysia.com 0621671-1199